

섬진강·평사리 악양들녘 ... ‘불멸의 고향’서 ‘토지’를 낳다



평사리 문학관 내부 모습.



경남 하동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낳은 불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소설의 무대가 되었던 최참판댁 별당채.

사람이
문화자산이다

<5> 소설가 박경리와 하동

대하소설 ‘토지’ 25년 걸려 완성
소설속 인물들 삶 형상화 최첨무대
하동군, 2001년 최참판댁 재현
작가 생애 볼수 있는 평사리문학관
매년 청소년 백일장·문학제 열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은 박경리의 고향이 아니다. 알려진 대로 박경리의 고향은 한려수도 통영이다. 또한 작가는 소설의 대부분을 강원도 원주에서 집필했다. 태어난 곳은 통영이지만, 하동이 배경인 ‘토지’를 강원도 원주에서 쓴 셈이다.

그뿐인가. 작가는 진주에서 학교(진주여고)를 다녔고 한동안 서울에서도 거주했다. 이처럼 박경리에게 생애적 고향과 생활공간, 소설적 공간은 각기 다르다. 삶은 현실의 공간인데 비해 창작의 영역은 다분히 상상의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일까. 하동과 통영 그리고 원주는 박경리를 매개로 동시에 환기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해 작가 박경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박경리가 지닌 브랜드 파워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하동이 자리한다. 언급한 대로 작가와 별다른 연고도 없는데도 하동은 ‘토지’를 낳은 ‘불멸의 고향’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동(河東)은 매우 시적인 지명이다. 물론 섬진강의 동쪽을 일컫는데, 비옥하면서도 평온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른 들과 실직한 강줄기의 모습이 연상된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한다사군(韓多沙郡)으로 불렸고 경덕왕 때 이르러 하동(河東)이 되었다 한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그곳에는 ‘최참판댁’과 ‘평사리문학관’이 있다. 박경리의 문학 흔이 집약된 곳이다. 전자는 소설의 주 무대이며 후자는 작품의 내재적 가치를 실감케 재현한 공간이다.

빛고을에서 하동까지는 넉넉잡고 두 시간 남짓 거리.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은 진경 그 자체다. 나긋한 물줄기와 유려한 산세는 마인의 섬섬옥수를 보는 듯하다. 겨울과 봄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깃 올트기 시작한 생명들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전라도와 경상도 주민들이 5일장을 매개로 하나가 되었던 화개장터를 지나고 나자,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산자락이 흘러내려 섬진강과 만나는 곳에 거대한 들녘이 부러져 있다. 토지의 무대 평사리(平沙里) 악양들녘이다. 예로부터 산과 강이 만나는 곳은 역사를 잉태했다.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물산의 교류와 선지식이 남아왔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너른 들녘이 대하소설의 공간이 되었던 건 당연한 결과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를 구상한 후 마땅한 무대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통영에서 나고 자라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 관계로 자신과 익숙한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모양이다. 대개의 예술가들이 그렇듯 생애적인 공간은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아마도 선생은 소설 속 인물들의 삶과 사고, 풍습을 자연스럽게



평사리문학관.



평사리에서 바라본 악양들녘.

형상화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로 이곳을 낙점하지 않았나 싶다.”

경남 문화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남숙 씨의 설명이다. 진 씨는 “섬진강과 맞닿은 악양은 경상도 말이 마지막으로 풀어지는 곳”이라며 “당초 박경리 선생은 외동딸인 영주 씨의 맹화자료 수집 여행에 동행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강과 산, 평야가 어우러진 이곳이 만석지기를 토대로 한 소설 공간의 최적지로 선택되었을 거라는 얘기가.

1969년 시작한 토지 집필은 25년이 걸려 1994년에 완료된다. 6·25 때 남편을 잃고 연이어 아들마저 잃어버린 ‘한 많은’ 작가는 그렇게 문학사에 빛나는 걸작을 완성했다. 원고지 4만장에 600만 글자가 새겨지는 대장정의 시간이었다. 최치수, 최서희, 김상이, 월선이 등 인물만 600여 명에 이른다. 생전에 작가는 “모든 생명을 거둬들이는 모신과도 같은 지리산의 포용력” 덕분에 글쓰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하동군은 일찍이 박경리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1년 총 9529㎡ 부지에 토지의 최첨관댁을 재현한 것이다. 별당과 안채, 사랑채, 문간채, 행랑채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조선 양반가의 전형적인 가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곳은 작가의 문학혼이 집약된 일차적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창작의 발신지’로도 재해석된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탐색, 생명 사상 등이 오히려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참판댁 뒤로는 이곳 지명을 딴 평사리문학관이 자리한다. 작가 박경리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 시대적 배경을 비롯한 당대의 풍습 등도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다. 매년 청소년 백일장과 문학제, 체험 프로그램이 알차게 꾸려진다. 문학관 뒤편에는 창작실이 있어 문인들이 상주하며 작품 창작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곳은 세트장으로 조성된 토지마을이다. 수십 여 동의 초가 마을은 조선시대 시골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여염집의 풍경은 비루하기보다 아늑하고 정겹다. 거리를 걷다 보면 조선시대로 회귀한 듯한 착각마저 든다. 이곳에서는 ‘하녀들’ ‘비밀의 문’ ‘조선 총잡이’ ‘왕의 얼굴’ ‘마파도 2’ 등 드라마 23편, 영화 7편이 촬영되었다. 개관 이후 10년 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만큼 하동의 명소로 부상한 것이다.

박경리는 명실상부한 하동의 브랜드다.(비단 하동에서만뿐만 아니다) 그녀가 쓴 토지와, 이를 배경으로 조성된 최참판댁, 평사리마을도 마찬가지다. 하동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을 빼놓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관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직관력, 앞을 내다보는 비전, 주민들의 의지 등이 맞물려 낳은 시너지 효과다.

아마도 박경리 효과는 점점 확장될 것이다. 소설 토지의 무대가 하동을 넘어 용정, 상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듯이, 하동은 ‘사람이 문화자산’임을 생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 심지 굳은 작가가 수백 명의 인물을 창조한 것처럼, 독심 있는 지자체의 마인드는 고유의 명품 브랜드를 키워낸 것이다.

/하동=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경리토지문학비.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